



영광 어민 피해 보상 요구 시위

노윤래

원자력 칼럼니스트 ·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1992년 초여름의 더위가 시작되는 6월 중순의 어느 날 오후 영광 주민 6~7명이 사전 통보도 없이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마침 본사의 원자력안전실장이 업무 협의차 출장 중이어서 필자와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 중이었는데 주민들의 험악한 인상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무실로 들이닥친 영광 주민들

사무실에 들어온 주민들은 먼저 사무실 문을 닫았는데 이는 회사 직원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사무실에 홀로 있는 필자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

필자가 1990년 8월 영광원자력본부에 부임한 이래 주민들의 원자력 반대 시위를 수 차례 경험했으나 사무실에 감금당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중요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본사에서 간부가 오셨으니 다음날 만나면 좋겠다는 필자의 제의를 한마디로 거절할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고위직 간부가 오셨다니 잘 되었다며 다그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어민 대표들이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안면도 사태의 악몽이 문득 떠올라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단단한 각오를 하는 한편 침착성을 잃지 않으며 어민들의 불만 사항을 경청했다.



한빛 원자력발전소 전경.

험난했던 방폐장 선정 과정

2015년 8월 저준위 방폐장 시설은 온갖 어려움을 겪은 끝에 29년 만에 겨우 준공을 보았으나 그 어려움 가운데 안면도 사태는 국내 원자력 개발 역사상 가장 참담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1986년 한국원자력연구원(원연)을 방폐장 관리 위탁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원전사업자(한전)가 아닌 제3자에게 방폐장 관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안전 관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원연은 방폐장 입지 선정을 위한 1차 추진 사업으로 1986~87년 경북의 3개 지역(영덕, 영일, 울진)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해 1988년 11월에 이 3개 지역을 방폐장 후보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듬

해인 1989년 5월 지질 조사를 시행중 주민들의 집단 시위로 중단했다.

정부는 2차로 1990년 중저준위 방폐장과 고준위 방폐장(사용후핵연료 저장용)을 분리해 중저준위는 무인도에, 고준위는 임해 지역에 건설키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원연은 우선 중저준위 방폐장 후보지로 안면도를 선정했다.

1990년 11월 원자력 최대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방폐장을 반대하는 주민 1만 여명이 벌떼처럼 일어나 시위를 했다. 일부 극렬한 주민들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에 대항하며 경찰지서를 방화하는 한편 공무원(군청 직원)을 납치해 린치를 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강력한 주민의 반대에 백기를 들고 1991년 6월 안면도 계획을 철회했다.



영광군 법성포읍에서 어민들이 굴비를 말리고 있다.

어민들의 불만 사항 경향

어민들의 불만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원전 온배수로 인한 피해 보상, 둘째, 발전소 주변 지원법에 따른 지원 방법의 개선, 셋째, 주민의 집단 이주, 기타 잡다한 요구 사항이었다.

무리한 요구사항에 대해 격한 반응보다는 요령 있는 설명과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민들의 분노를 풀 수 있다고 판단한 필자는 어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다.

회사는 업무상 주민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온배수에 의한 피해 보상을 위해 한국해양연구소에 이미 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용역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어민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군산대학의 수산학 교수 2명을 해양연구소의 용역 팀에 포함하도록 했다.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영광경찰서 보안과장이었다. 만일의 경우를 염려해 회사 직원이 경찰서에 연락을 한 모양이었다. 필자는 어민들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해 보안과장을 안심시키고 어민과의 대화를 계속했다.

솔직한 대화...어민들에게 감사패 받아

발전소 주변 지원법은 주민의 소득 증대 사업, 학자금, 공공 사업 등에 자금 지원을 하도록 전력 판매 수익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는 제도인데, 지원금의 분야별 배분은 행정상 군수가 대표로 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소득 증대 사업보다는 공공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어민들의 불만이었다. 도로 확장이나 포장보다는 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주민들은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열악한 지방 정부의 세원으로 공공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대부분의 지원금을 공공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게 된 필자는 이 문제를 군수와 협의해 개선토록 조치하겠다고 어민 대표에게 약속했다.

주민의 집단 이주 요구는 원전의 폭발 가능성, 방사선의 위험성 때문이라며 체르노빌 참사를 언급했다. 필자는 체르노빌과 우리나라 원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한빛원전 관계자들과 지역 어민들이 영광 계마항 인근 바다에 원전 온배수로 키운 감성돔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어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으나 어민들은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

한참 생각 끝에 필자는 안전이란 절대적이 아님을 시인했다. 인간은 신(神)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원전이 절대로 안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보다도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몇몇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 원전 직원들은 안심하고 교대를 하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필자는 힘주어 말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창문에 비친 초 여름날의 석양빛이 필자로 하여금 눈을 뜰 수 없게 했고 몸과 마음은 지

쳐 있었다.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달리 얼굴에 미소를 띤 어민들은 필자와 악수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1994년 3월 필자는 3년 6개월 근무한 영광원자력본부를 끝으로 정년 퇴직했다. 인사 발령을 받은 다음날 홍보부장이 뜻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어민 대표가 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겠다는 것이었다.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어민 대표가 한 말을 필자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본부장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은 그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